

원전/재난 아시아의 지금 특집 / 연재

프로메테우스의 닷 서울에서 쓰는 편지 일본 보물찾기 달인 회사원

#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㉔ 스승과 제자가 말하는 아베 정권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㉔ 남북, 불꽃 튀는 신경전

April 16, 2013 트윗 0 좋아요 4

작년 가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연구소장으로 취임한 박철희 교수는 일본에도 알려진 정치학자다. 박 교수와 나는 20년 전에 알게 됐는데, 당시에는 청년처럼 기백이 넘쳤던 이 연구자도, 어느새 50살이 됐다. 젊어 보이는 모습에 농담만 하는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본연구소를 이끌며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나를 객원연구원으로 초빙해 준 것도 그 과정 속의 하나였다.

박 교수의 은사는 컬럼비아대학교 제럴드 커티스 교수다. 일본을 연구한 경력이 50년에 육박하는 미국 굴지의 정치학자로, 나하고도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일찍이 박 교수의 미국유학 시절에 “일본 정치현장을 잘 보라”고 누누이 강조한 사람이 커티스 교수인데, 말하자면 박 교수는 ‘한국의 커티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은사가 이달 12일, 제자가 이끄는 연구소를 찾아와 강연을 했다. 나와 박 교수도 도중부터 참가해 토론도 하고 학생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는데, 주제는 물론 ‘일본 정치’였다. 커티스 교수는 “한국 학생들 앞에서 일본어로 말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웃으며, 유창한 일본어로 강연장을 달궜다.

“아베 총리는 6년 전 총리였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안 든다.”

우익성향의 정책을 드러내지 않고 일편단심 아베노믹스로 얻은 경기부양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어, 예전과는 다른 현실적인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제는 아베 총리의 그러한 ‘안전운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달렸을 것이다. 학생들에게서는 “아베노믹스의 결함은 뭔가”, “고노 담화를 다시 생각하겠다 발언하는 총리를 믿을 수 없는데”, “독도 해결책은?”, “일본 국민들은 이시하라 신타로 씨 같은 극우 정치인을 지지하는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 ● ‘반일’ 자극이 일본 우경화에 영향?

특히 아베 총리의 ‘우파적 체질’과 일본의 우경화에 경계심이 강한 한국이다. 박 교수를 비롯해 장내의 관심이 그쪽에 쏠린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문제는 나와 커티스 교수 역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만일 정말로 일본이 우경화에 몰들어 간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중국과 한국 등이 ‘반일’로 지속적인 자극을 가했을 경우가 아닐까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나와 커티스 교수의 의견은 일치했다.

그런 의미에서도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커티스 제안’은 명확한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일본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할 것. 왜냐하면 일본이 다케시마를 무력으로 얻으려 갈 가능성은 0퍼센트인데다, 한국의 지배를 사실상 인정해 갈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 한국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야 얘기는 간단하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커티스 교수는 일본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하지만, 이는 아베 총리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양국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은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곤란한 일”이라 말하는 커티스 교수는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시사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골치 아픈 요즘, 일본과 한국이



서울대학교 강연 모습.



More AAA

Facebook  
Twitter

### 관련기사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㉔ 남북, 불꽃 튀는 신경전



April 03, 2013

서울에 온 뒤로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플랫폼 여기 저기 음료자판기에 섞이듯 비슷한 모양의 '구호용품 보관함'이 놓여 있는 것을 깨달았다. 유리케이스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하고서는 거론조차 할 수 없는 문제다.

때마침 강연 당일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한 날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북한에 대화요청을 막 행한 참이었다. 강연이 끝난 후 연구소 사람들과 한국요리를 즐긴 커티스 교수는 말했다. “미국 TV는 떠들썩한데, 한국에 와 보니 침착한 모습이군요. 일본도 아베 씨가 생각보다 차분해 다행입니다.”

이것만은 양국의 반응에 조금 안심한 모양이었다.

###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 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1970년부터 아사히신문 기자로 활동. 정치부장, 논설주간 등을 거쳐 주필을 역임했으며 2013년 1월에 퇴직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권오기 씨와의 대담) 등이 있다.



안에 진열된 용품은 방독면인데, 자세히 보면 2종류가 있고 한글로 '화재용' 과 '화생방용' 이라 적혀 있다.

트윗 0

좋아요 0

###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March 21, 2013

나는 '석학' 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석좌교수' 의 칭호를 받게 됐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도 '객원연구원' 으로 맞이해 주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내 정체는 매일 같이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배우러 다니는 '유학생' 이라 하는 편이 알맞을 듯하다. 이런 나의 서울 생활이 이달 초순부터 시작됐다.

트윗 0

좋아요 0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베 정권 박철희 제럴드 커티스

1

Share



트윗 0

좋아요 4



댓글 입력...

댓글 달기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남북, 불꽃 튀는 신경전

English Japanese Chinese Korean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문의하기

게재 기사, 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 및 국제 조약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by The Asahi Shimbun Company. All rights reserved. No reproduction or republication without written permission.